체코편지 32호 (2020년 2월 15일)

샬롬!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 시 27:7

코로나 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날마다 들려오는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지난 한두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전히 한국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호전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만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까지 종식되어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국가 경제와 개인 가계들이 안정을 되찾고 외교적으로 차단된 모든 관계들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은 이탈리아 사태가 너무 심각하여 전체 유럽이 위기의 한 판에 놓여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체코의 모든 학교가 문을 닫았고 심지어 교회나 모든 공공 기관도 3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되었고 오늘부터는 식당과 상점도 무기한 문을 닫았습니다. 다만 작은 마트와 주유소 등 꼭 필요한 곳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길도 국경도 막혀서 유럽의 나라조차도 이동하는 것이 제한되며 각자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사람들이 볼때 한국이 코로나 19를 대처하는 것이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한국인들의 열심과 헌신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고 확실히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과 체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는데 사실 약국에서 마스크가 없어 살수도 없어서 김선교사가 면 마스크를 직접 만들었는데 좀 더 잘 다듬에서 체코의 필요한 분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생동하는 봄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이 여기사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열방에 평안이 찾아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힘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시드선교회 국제 컨퍼런스 성료

파송단체인 시드 선교회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월 19~23까지 T국 에베소에서 열렸습니다.
4년마다 열방에서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말씀 대성회와 선교 사역 보고 등을 통해 영육간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선교사 자녀들도 함께하여 기쁨이와 사랑이도 오랜만에 한국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특히 기쁨이가 MK 교사로 섬기는 가운데 선교사 자녀의 정체성을 든든히 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초대교회 바울이 세웠던 일곱 교회들을 선교사님들과 정탐하면서 조국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부르짖고 또한 서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함께합니다!

행복한 노방전도 사역

날씨가 많이 풀리고 해가 조금 길어지면서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마틴과 데이빗과 함께 노방전도를 은혜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도할때는 공원이나 광장 등 소수의 사람들과 만나 상대방과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빨리 해결되어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체코 제자훈련 사역과 화요 중보기도회

매주 화요일 새벽 중보기도회와 저녁 체코 제자훈련 사역이 은혜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코 정부에서 30명 이상의 집회나 모임등은 금지하고 있어서 제자훈련 소그룹은 서로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3권 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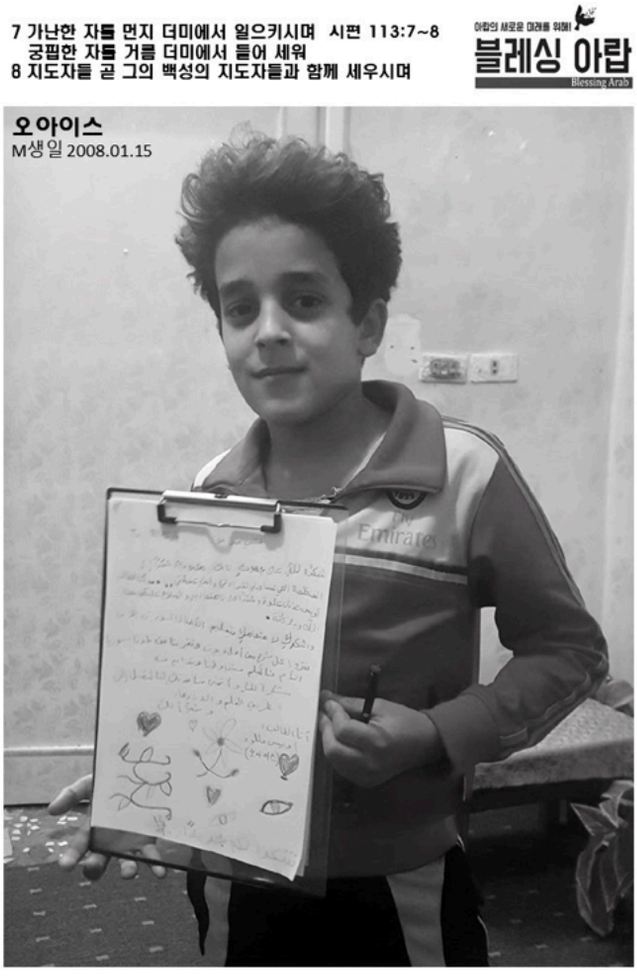
순종의 삶을 시작합니다. 인도자 David 과 일곱명의 체코 청년들이 제자훈련 통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원합니다

익투스교회 빠벨목사님과 인드라 장로님 초대

리또메르지체 익투스교회 빠벨 목사님 부부와 인드라 장로님을 프라하에 초대하여 새해 사역과 동역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협력 선교사 서류와 차량 및 보험료 등 과 관련하여 현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관심가져주시고 가족같이 도움을 주시는 두분을 생각할때 얼마나 감사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비자 만료 기간(2020년 2월 27일)이 이미 종료되었지만 연장 신청했던 장기비자가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행정 업무가 중단되어 언제 나올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후원 시작

J국에서 사역하시는 죠셉선교사님의 시리아 난민사역(블레싱 아랍)에 EEMF 프라하 센타에서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두살 오아이스는 아버지가 시리아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J국에 살고 있는데 블레싱 아랍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돌봄을 받으



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파일럿이 꿈인 오아이스가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장차 아랍의 영적인 봄을 일으키는 귀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국가적 차원 뿐만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삶에 변화를 주셔서 속히 극복하게 하옵소서

2.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모든 환경속에서 예배와 제자훈련 그리고 노방전도 등 선교 사역도 맞춤형으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때에 체코교회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님의 선교에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신청한 장기비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체코 정부 행정이 중단된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주시고 파송교회와 협력교회들 그리고 시드선교회의 모든 사역이 위기속에서 선교적 영향을 극대화시켜 주옵소서

4. EEMF 중보기도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교사에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쁨이와 사랑이가 학업과 매일 가정에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선교와 언어 훈련중인 평안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정훈 김정희선교사 연락처

* 한정훈 +420-773697998

* 김정희 +420-604161477

* 홈페이지 www.eemf.or.kr (황선경집사)

* EEMF Korea 총무 (오유열 집사 010-2296-3392)

* 중보기도팀 (문현재, 유제만,이지원, 임연희, 장지연)

* 후원문의 (이춘희 권사 010-5414-9777)

* 후원계좌 (KEB 하나은행 990-094155-383)

- 예금주,한정훈, SEED International Korea 전용

Copyright © 2020 EEMF, All rights reserved.

Want to change how you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pdate your preferences or unsubscribe from this list.